

# 공인인증서 없애니 금융사별 인증서?… 소비자 피로도 ↑

인증서 난립에 소비자 불편 우려  
우리은행에 금융인증서 첫 적용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인증 다양



유투이미지

다음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짐에 따라 사설 인증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라는 낡은 기술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인증서 난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한 금융인증서를 우리은행에 처음 적용하고, 다음달 10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WON)금융인증서는 우리 원 은행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음달 10일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및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필요 시 PC나 모바일 등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개 발급되고, 비밀번호도 10자리 문자 대신 패턴이나 지문으로 대체된다. 발급받은 금

용인증서는 은행뿐 아니라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인증서 경쟁 본격화

문제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인증서들이 존재한다는 것.

현재 가입을 가장 많이 한 인증서는 카카오페이인증과 패스(PASS)인증이다. 카카오톡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인증은 지난 9월 기준 1700

만건을 넘었다. 이동통신3사와 핀테크 업체 아톤이 내놓은 PASS도 지난 9월 기준 발급건수가 1800만건을 넘었다.

금융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도 '네이버 인증'을 내놓은 상태다. 네이버 인증은 자사의 웹 브라우저 웨일에 네이버 인증서를 탑재해 모바일 이외에 PC에서도 별도의 복사 없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인증의 지난 9월 발급건수는 120만건이다.

시중은행들도 자체인증서를 개발해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해 KB국민카드와 KB손해보험 등 계열사 5곳과의 연동을 마쳤다. 생체인식이나 패턴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카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농협상호금융과 'NHOnePASS' 통합인증서를 도입하고 공공, 금융, 쇼핑 사이트와 연계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도 아톤의 보안솔루션을 활용해 'IBK모바일인증서'를 도입한 상태다.

여기에 은행들은 지난 2018년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특성을 활용한 '뱅크사인' 인증서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당분간 '공인'을 뺀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다.

### ◆소비자 인증서 비교선택…피로도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라는 낡은 기술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인증서 난립에 따른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하나면 어느 사이트에서든 업무를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이트마다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다르기 때

문이다. 특히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가 공공분야에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 관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분야 분야 웹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후보로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PASS) 등 5곳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자를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발급한 인증서가 공공분야까지 사용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다를 경우 인증서마다 발급기관과 저장위치, 유효기간 등을 소비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인증서가 도입돼 소비자가 특정 인증서에 정착하기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마도 당분간은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노리는 다양한 인증서가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이 있었지만 공인인증서는 국민들의 90%가 사용한 보편적 수단이었던 만큼 소비자들은 비교 선택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저축銀 순익 1조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

1~9월 중 당기순이익 1조203억원  
대손충당금 전입액·이자이익 증가

저축은행의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갈아치웠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9월 중 당기순이익은 1조2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6억원(9.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 늘었지만 이자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자산은 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조1000억원(10.6%) 증가했다.

총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8조2000억원(12.6%) 증가한 7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41조1000억원)은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FY19		FY20		증감(B-A)	증감률
	19.1~9월(A)	20.1~9월(B)	19.1~9월(A)	20.1~9월(B)		
영업손익(A=a+b-c-d)	15,494	11,404	12,552	1,148	10.1	
- 이자손익(a)	44,829	33,070	37,004	3,934	11.9	
- 이자비용	15,527	11,498	11,515	17	0.1	
- 비이자손익(b)	△3,892	△2,405	△2,427	△23	0.9	
비영업손익(c)	13,720	10,011	10,517	506	5.1	
대손충당금전입액(d)	11,724	9,251	11,508	2,257	24.4	
영업외손익 등(B)	△2,714	△2,047	△2,349	△302	14.8	
당기순이익(A+B)	12,779	9,357	10,203	846	9.0	

/금감원

법인대출 위주로 3조9000억원(10.4%), 가계대출(29조6000억원)은 신용대출 위주로 3조5000억원(13.5%) 늘었다. 자기자본은 10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200억원(10.2%)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잉여금이 늘었다.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높아졌지만 대체로 양호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3.8%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동월 말과 비교하면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2%포인트 오른 4.1%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 재개

자산 실재성 확인 가능 상품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19일 사모펀드 관련 내부 재정비와 판매 기준을 정립하고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한 상품에 한해 상품판매를 진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복잡한 구조로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강된 상품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한해서만 사모펀드를 판매한다. 또 상품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실제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고 운용보고서를 설명하고 전달한다.

하나은행이 이같은 재정비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사모펀드 상품은 인천시청라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직접 실재성을 확인하고 상품으로 만들었다. 하나은행의 침입방지시스템(IPS)부에서 한번 더 검증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후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

하나은행 IPS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해 손님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이다"며 "향후에도 손님 신뢰를 회복하고 손님 니즈에 맞는 상품의 기획 및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 현대카드, 배민 단골고객 카드 출시

기존 포인트와 별개로 적립

현대카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전용 혜택을 담은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배민현대카드'를 선보였다.

배민현대카드는 배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배민포인트에 집중된 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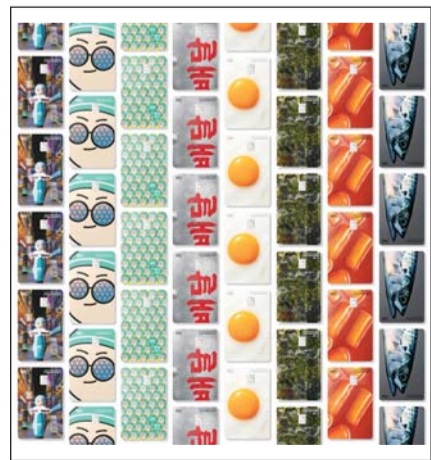
먼저 배민 앱에서 배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존 포인트 적립과는 별개로 결제금액의 3%를 배민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여기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배민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혜택을 제공한다. 13개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6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결제금액의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0.5%가 배민포인트로 쌓인다.

배민 특유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카드 플레이트도 눈길을 끈다. 총 8가지 디자인으로 이뤄진 카드 플레이트는 고등어, 김, 떡볶이 등 음식 이미지를 위트 있게 담은 디자인과 배민의 대표 아이콘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카드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첫 카드 이용 후 6개월 동안은 추가 배민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배민 앱에서 배민페이로 결제시 2% 추가



적립을 제공해, 결제 금액의 총 5.5%가 배민포인트로 쌓인다.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는 3%, 일반 가맹점에서는 1% 특별 적립 혜택을 6개월간 제공한다.

/이영석 기자

## ‘우리WON뱅킹’ 최초 가입 고객 이벤트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 최초 가입고객 2만명을 대상으로 '너랑 나랑~! #오늘부터1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을 최초 가입하고 로그인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스타벅스 커피교환권(1+1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초음파클렌저 등을 총 6명에게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풍성하게 준



비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